

전북형 뉴딜 세부과제 283개

D.N.A융합 · 스마트 농생명밸리 · 그린 모빌리티 산업 전환 · 일자리 창출 등 추진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도출한 '9대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의 '3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로드맵을 설정하고, 총 28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20조 7,800억(국비 7조 3,425억, 지방비 2조 7,221억, 민자 10조 7,154억) 규모로, 계속사업 110개(14조 4,181억), 신규사업 173개(6조 3,618억)를 구성한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연도별로는 2022년까지 총 5조 5,052억원, 2023년~2025년까지 15조 2,749억원을 투입하는 목표의 사업을 구성했다.

여기에다 한국판 뉴딜에 총 11조 5,160억원, 지역 뉴딜에 8조 6,697억원, 공공기관 뉴딜에 5,944억원을 구성해 수립했다.

▲디지털 뉴딜

도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북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킬 구상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조 8,689억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4.9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D.N.A융합 전북경제 ▲스마트 농생명밸리 2.0 ▲디지털문화·관광 실험형 콘텐츠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북도민의 삶터라는 4개 분야로 나누고,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그린뉴딜

전북의 특산물 그린뉴딜은 전북형

뉴딜로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 그린 뉴딜 1번지로 거듭난다는 방안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 8,632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5.2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1번지·에너지 전환 확대 ▲그린 모빌리티 산업 전환 ▲천년산하 생태벨트·그린바이오 3대분야로 설정하고,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안전망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 ▲디지털 돌봄·포용의 2개 분야, 4개 핵심과제에 2025년까지 1조 479억원 투자,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전북의 지역적 특장점을 반영한 '8대 대표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2021~2025, 1조1,000억원)

새만금 SK 데이터 센터 조성을 기회로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와 기반조성(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망 구축 등)과 데이터 연관산업(정비, 데이터 유통 등)을 육성 추진한다.

②디지털 중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2020~2025, 1,000억원)

중자기업의 디지털 육종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육종연한 단축, 유량증가 개발효율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디지털 민간육종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최적화된 식품가공 생산시스템을 개발·실증해 식품기업에 제공하는 '디지털 식품가공 플

랫폼 구축사업'으로 구성한다.

③초실감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2020~2025, 1,275억원)

전북이 선점한 홀로그램 분야에서, 산업육성기반 공고화(홀로그램 소재 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 실감 콘텐츠 및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체험형 실증 사업화(홀로그램 무형 문화재 공연 등)를 통해 산업적 성과확산을 추구한다.

④드론기반 안전망(2020~2025, 970억원)

제안·재해시 드론을 활용한 위기 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산악지역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등 드론 기반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⑤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2020~2025, 6,815억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단지(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를 조성하고, RE100과 연계한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을 구축한다.

⑥그린모빌리티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2020~2025, 6,237억원)

운송체계 트렌드 변화(친환경·지능화·경량화)에 대응해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 전주기(소재·부품·완성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⑦하천·산림·해양 생태백신조성(2020~2025, 1조560억원)

하천 및 생태복원사업(만경·동

진강 유역 생태문화 복원사업 등), 산림 인프라 및 치유공간 조성(미세먼지 차단숲·국가지질공원 인증·운영 등), 친환경 해양 생태계 기반 구축(폐연전 식생·갯벌 생태계 복원 등)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그린 인프라를 확보해 생태백신 브랜드를 선점한다.

⑧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2020~2025, 1,793억원)

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뉴딜인재 양성시스템 구축(교육프로그램, 창업지원 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지역대학 내 벤처타운 및 캠퍼스 혁신타운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당위성 등 논리를 보강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와 시·군 자체재원사업과 초광역사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및 공공기관·대학 등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의견도 계속 수렴해 전북형 뉴딜정책을 진화시킬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하세요”

전북도,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서 신청
올해부터 유희·사행성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사용처 확대

도내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오는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2016년 전북도민의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단초를 제공했다.

첫발을 내딛은 2016년 도내 1만1,000명의 여성농업인을 시작으로 2017년 1만4,000명, 2018년 1만9,000명, 2019년 2만8,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2,000명으로 꾸준히 사업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과 학습·건강 등 복지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바뀐 제도 중 눈에 띄는 점은 사용처 확대다.

지난해까지는 37개 업종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희·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아울러, 고�령 여성농업인 등이 카드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까운 면 소재지의 지역농협을 포함한 216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3%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바우처를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도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직접적 자금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원하는 도내 만 25세에서 만 75세 미만(결혼한 경우, 만 20세에서 만 24세 포함)의 여성은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첨부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기자

도 문화콘텐츠진흥원→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변경

(재)전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재)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최용석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은 7일 “전북도를 위한 콘텐츠 기술과 산업이 더이상 문화 영역에 갇히지 않고 시대에 맞게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규모 있는 다양한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갔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올해 국책 사업비 82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및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등 지원사업과 입주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신규 고용창출 159명, 매출액 231억원을 달성했다.

또, 이와 함께 34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최용석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콘텐츠융합진흥원이 다양한 시책 개발과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해 전북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국세청,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파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 **현영**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